

새로 나온 책

▶ 의미들: 마음의 고통과 위기의 날들(수잔 스캔런 지음, 정지인 옮김)=미국 시카고 인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자는 한때 '미친 여자'였다. 대학 진학을 위해 뉴욕으로 이주한 때가 1992년 1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게 된 그는 전자레인지에 구운 감자 말고는 다른 음식들을 삼킬 수 없었고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결국 뉴욕주립정신의학연구소 건물 5층 병동에 입원해 그곳에서 3년을 보냈다.

저자는 자신의 고통을 '학대받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 환원하려는 정신병동 의료진들의 시도에 반발했다. 자신의 존재가 '우울증 환자'라는 진단명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맞섰다. 그 과정에 독서와 글쓰기는 병원 밖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해소할 길이 없는 감정들은 마르그리트 뒤라스, 실비아 플라스, 버지니아 울프 등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며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동력으로 바뀌었다. 엘리.

▶ 다정한 날들이 단단한 인생을 만들지(임희재 지음)=프랑스와 독일에서 오페라와 뮤지컬을 공부하고 돌아온 저자가 14년 동안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만난 다정한 사람들과 다정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유럽에서의 경험이 남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타인을 대하는 열린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언제나 미소를 건네며 인사하던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운을 잡아 끌어주던 사람들, 마음을 다해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덕분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다정하다는 건 그들의 가슴에 이미 행복을 품고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는 것인지 모른다. 달.

▶ 무지개(D.H.로런스 지음, 강미숙 옮김)=브랭컨 집안 3대의 성과 사랑, 삶을 통해 근대문명의 본질을 포착한 장편 소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로런스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꼽힌다.

브랭컨 집안은 200년 넘게 농부로 살아왔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인근에 탄광이 개발되고 신도시가 조성된다. 자연의 순환에 몸을 맞추고 수많은 생명과 교감하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었다. 주어진 삶의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열망을 안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자 하는 개인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전 2권. 창비.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50년대 이후 제주시내 목욕탕·빵집』



삶의 피로를 풀고 허기를 달랠던 그곳

일도1동에서 건입동까지
원도심권 중심 현장 조사
필수 방문 코스 빵집 등
지금은 추억이 된 이름
도시의 변화상 알려줘



제주문화원의 '1950년대 이후 제주시내 목욕탕·빵집' 본문 그림.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제주시 일도1동에 있던 영춘 빵집에서 일했다는 80대 여성. 그의 젊은 날과 함께했던 1960년대 영춘 빵집은 제주 방문자들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코스였다. 오늘날의 '빵지순례'처럼 여행객들은 영춘 빵집을 찾아 빵을 사서 먹었다. 70대의 한 여성은 영춘 빵집의 빵은 겉질이 얇고 안에 팔이 많이 들어 있어서 맛있었다고 기억했다.

이처럼 제주시 도심에 있던 빵집의 여정을 모은 책이 나왔다. 제주문화원에서 펴낸 '1950년대 이후 제주시내 목욕탕·빵집'이다. 이웃들이 안부를 나누던 동네 사랑방 같았던 목욕탕, 새로운 식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빵집 등 도시의 변화를 알려주는 공간들을 살폈다.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들의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엮은 이 책은 목욕탕과 빵집으로 나눠 변천사를 수록했다.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순으로 목욕탕과 빵집들이 태어나고 사라진 사연을 적었다.

김양택 제주문화원장이 발간사에서 강조했다. "제주시내의 목욕탕과 빵집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나 상업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삶의 결을 고스란히 담아온 생활문화의 현장"이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목욕탕에서 삶의 피로를 풀었고, 갓 구워 나온 빵으로 허기를 달랐다.

목욕탕은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는 업소도 있지만 더러는 문을 닫았다. 금호탕처럼 문화 공간(산지천갤러리)으로 변한 곳도 있다.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들은 현장 답사를 벌이며 시설 노후화, 인구 감소 등으로 원도심

권 목욕탕들이 폐업하는 사례와 마주했다. 균열,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로 목욕탕 굴뚝이 하나둘 철거되는 것에는 아쉬움을 전했다. 말미에는 2024년 8월 9일 기준 50곳의 이름, 운영 상태, 굴뚝 유무, 건립 연도, 신주소 등을 도표로 소개했다.

빵집의 경우 브랜드 빵집이나 베이커리(카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래전 영업을 중단한 빵집 중 일부는 그곳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을 만나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리했다. 빵집이 차려졌던 자리에 미용실, 커피점, 신발 가게, 고깃집 등이 들어선 현재의 모습도 사진으로 기록했다.

빵집 현황에는 24곳(2025년 9월 26일 기준)의 주소, 개업 시기를 안내했다. 다만 폐업 연도는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파악 가능한 곳만 실었다. 비배품. 전선희기자

“타자를 환대할 때 비로소 주인이 된다”

철학자인 두 저자가 이 책의 후기를 쓰고 있던 때는 2020년 여름. 미국 보스턴에 머물던 저자들은 책 전반에 걸쳐 “이 방향을 맞히고, 타인에게 정신적·물리적 경계를 열며, 미지의 손님을 환영하자”고 했던 요청이 심박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느낀다. 님이 아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환대의 제스처인 악수마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금지되었던 시기였지 않은가.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은 무조건적인 환대의 어려움을 상기시켰지만 저자들은 그 한편에 놓인 다른 얼굴을 봤다.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감사 인사를 보내기 위해 가까운 이들에게 더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환대

가 나타났다고 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타인에게 얼마나 의존적인지, 우리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급진적 환대: 사유에서 행위로’(강지하·김동규 옮김)는 분열된 정치, 외국인 혐오, 생태적 혼란을 겪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호스트(host, 주인), 호스티지(hostage, 볼모) 등 호스트 계열 어휘들의 어원을 찾아 환대와 적대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드러내며 인간은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수락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참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한다.

책의 1부는 리처드 카니가 집필을

말아 언어, 이야기, 신앙, 육체라는 네 가지 차원을 통해 환대의 다양한 면모를 들여다봤다. 2부에서는 멜리사 피츠패트릭이 환대의 윤리를 지평하는 도덕 심리학과 타자성의 현상학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 환대의 문제가 교실과 생태라는 구체적인 장면에 다다른다. 교실은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 경험이 충돌하는 공간이며 환대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으로 번역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동물과 식물, 나아가 지구 자체는 이미 우리 문 앞에 도착한 손님들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환대가 타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라면 그 범주는 이제 인간을 넘어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는 모든 존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무리. 전선희기자

‘급진적 환대: 사유에서 행위로’
호스트 계열 어휘들 어원 탐색
환대·적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novita
A KOHLER COMPANY

기간 한정 이벤트

전국 대리점 단독
노비타 살균비데 보상판매

2026. 3. 2. ~ 4. 30.

노비타 비데
특별할인가제공
*사용 비데 만년 시

무료수거,
무료 설치

비데 필터 증정
(2개)

자세히 보기 ▲

novita
A KOHLER COMPANY

3년 무상 보증으로
걱정없이!

노비타비데 특별 혜택
2026.3.2 ~ 4.30

무료 설치 | 무료 수거 | 비데 필터 증정(2개)

살균비데 프리미엄
BD-H910HB

519,000원
459,000원

#리모컨 #자동물내림 #자동개폐
#하루두번자동살균 #세가지수류
#다이나믹무브 #강력방수(IPX5/리모컨 IPX7)

살균비데 리모컨형
BD-H700H0

419,000원
359,000원

#리모컨 #하루두번자동살균
#세가지수류 #다이나믹무브
#회전노즐 #강력방수(IPX5/리모컨 IPX7)

살균비데 일반형
BD-H500E0

335,000원
285,000원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더블살균비데
BD-DHS8-010RA

<479,000원
429,000원

#3년무상 AS #리모컨 #UV노출살균
#하루두번자동살균 #순간직수거열
#강력방수(IPX5/리모컨 IPX7)

슬림비데 컴팩트 리모컨형
BD-GCS4-03ERA

<289,000원
249,000원

#3년무상 AS #리모컨 #슬림디자인
#미스트세정 #누전차단기능
#강력방수(IPX5/리모컨 IPX7)

라인핏비데
BD-AFE50N

<299,000원
229,000원

#3년무상 AS #슬림디자인
#공기방울세정
#강력방수(IPX5/조작부 IPX7)

구입문의 제주위닉스 총판 및 A/S센터 · 제주노비타 총판 및 A/S센터
064)758-0990~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